

# 4강 전사들 “결승 올라 새 땅 가보자”

대표팀 전세기 타고 ‘일본 꺾은’ 루블린 입성  
내일 새벽 3시30분 에콰도르와 4강 맞대결  
정정용 “회복 관건…컨디션 따라 선수 구성”



“새로운 곳을 가보자.”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한 한국축구의 미래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다시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곳이다.  
일본전 후 대표팀은 세네갈과의 8강전이 열리는 비엘스코-비아와까지 버스로 약 9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거리는 약 400km 떨어져 있지만, 도중에 식사와 휴식을 하면서 오노라 하루를 이동에 다 썼다.

하지만 에콰도르와의 대결을 위해 다시 루블린으로 가는 길은 좀 수월했다. 비엘스코-비아와 인근 카토비체 공항으로 1시간 남짓 차량으로 이동해 다시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루블린에 도착할 수 있었다.

4강행 주역 중 하나인 골키퍼 이광연(강원)은 “몸도 마음도 편하다. 개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블린을 다시 찾은 정정용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한테 폴란드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정복하자’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를 가보자 했던 것”이라면서 “루블린은 한번 왔던 장소이고 결승은 새로운 곳에서 한다. 정복자의 마인드로 잘 준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세네갈과 열투를 벌이고 나서 이날 FIFA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루블린으로 향했다.  
루블린은 지난 5일 속직 일본과 16강전을 치러 후반 39분 오세훈(아산)의

헤딩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곳이다.  
일본전 후 대표팀은 세네갈과의 8강전이 열리는 비엘스코-비아와까지 버스로 약 9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거리는 약 400km 떨어져 있지만, 도중에 식사와 휴식을 하면서 오노라 하루를 이동에 다 썼다.  
하지만 에콰도르와의 대결을 위해 다시 루블린으로 가는 길은 좀 수월했다. 비엘스코-비아와 인근 카토비체 공항으로 1시간 남짓 차량으로 이동해 다시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루블린에 도착할 수 있었다.  
4강행 주역 중 하나인 골키퍼 이광연(강원)은 “몸도 마음도 편하다. 개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블린을 다시 찾은 정정용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한테 폴란드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정복하자’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장소를 가보자 했던 것”이라면서 “루블린은 한번 왔던 장소이고 결승은 새로운 곳에서 한다. 정복자의 마인드로 잘 준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세네갈과 열투를 벌이고 나서 이날 FIFA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루블린으로 향했다.  
루블린은 지난 5일 속직 일본과 16강전을 치러 후반 39분 오세훈(아산)의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세네갈을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이강인(앞)과 엄원상(뒤) 등 선수단이 10일 새벽(한국시간) 폴란드 카토비체 공항에서 대회 조직위 측이 제공한 전세기에 탑승해 4강전이 열리는 루블린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두 이 대회에서 대표팀이 가보지 못한 곳이다.  
한일전 승리의 장소 루블린에 다시 온 데 대해 정 감독은 “한일전 기억보다 어제 기억이 아직 가지지 않는다”며 기억 같은 세네갈전 승리의 감흥을 쉽게 떨쳐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좋은 추억이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팀워크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감독은 이어 “세네갈전이 끝나고

경기장 라커룸에서 대표팀 선수들에게 “내가 국민과 한 약속(4강)은 지켰으니 이제 너희들이 국민에게 약속(우승)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부담감을 팍팍 줬다”고 웃으면서 “잘 준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단 4강에 진출해 루블린에서 다시 보자고 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이광연도 “국민들에게 얘기한 건 꼭 지키고 싶어서 우리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흐뭇해했다.  
다만, 연일 계속된 열투와 이동 등

로 선수들의 체력은 갈수록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감독은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상대도 똑같다고 좋게 생각하려 한다”면서 “상대방의 전술도 봐야 한다. 컨디션을 지켜보고 선수 구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광연은 “에콰도르와는 대회가 개막하기 전 친선경기에서 이진 경험(1-0 승)이 있어 딱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복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 광주시청 양궁 김옥금 세계장애인 선수권 ‘은’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소속 김옥금이 2019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 2020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국내 여자 컴파운드 W1 종목에서 독보적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김옥금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획득으로 지난 2016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 패럴림픽 출전과 함께 금메달 한을 풀 기회를 잡았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서용규 수석부회장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값진 은메달과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옥금 선수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리커브 W2 김란숙·조장문 그리고 컴파운드 W2 정진영 선수도 메달 획득과 함께 패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10일까지 네덜란드 스테르토헨보스에서 열렸다. /최진화 기자

## 광양제철고 축구협회장배 결승 진출

광양제철고가 제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9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 U18과의 대회 4강전에서 전반 16분 문성후(3년)의 결승골로 1-0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

광양제철고는 11일 오전 11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전주 영생고(전북 현대 U18)와 대회 우승컵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조별 예선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U18과 아산무궁화 U18을 모두 3-1로 제압하며 2연승을 거둔 광양제철고는 일찌감치 8강에 진출했다. 8강전에서는 수비수 신민철이 퇴장을 당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기계공고(대전 시티즌 U18)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2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결승 진출로 광양제철고는 지난 2월 광양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고교대회 결승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최진화 기자

## 기성용 16일 광주FC 홈경기 관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 FC)이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10일 광주FC에 따르면 기성용은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 15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광주 구단의 개인 최대주주(4,000주)이자 창단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기성용은 지난 2015년부터 방문을 시작해 이번이 4번째 관전이다.

광주는 기성용의 방문이 반갑다. 기성용이 관전할 때마다 승점 3점을 따냈기 때문이다. 2015년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0 승, 2017년 FC서울을 상대로 3-2 승, 2018년에는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다.

14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부산 아이파크와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로서는 승점이 필요하고, 이에 기성용의 방문을 반기고 있다.

기성용은 이번 방문에서 기념티셔츠와 축구공 등 다양한 기념품을 하프타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영욱 광주 단장은 “올 시즌 광주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팀은 무패 1위를 달리고 있고, 전용 훈련장과 구장 등 인프라도 구축 중”이라며 “만드시 승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이란전을 앞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이 10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환점 도는 KIA 반등 불씨 살릴까

꼴찌 롯데와 2.5게임차 9위…오늘 선발 차명진  
삼성·롯데와 6연전 부진시 하위권 경쟁도 밀려

◇ 2019 KBO리그 중간순위

순위	구단	승-패-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42-22-1	0.656	0.0	1패
2	두산	41-25-0	0.621	2.0	2패
3	LG	37-27-0	0.578	5.0	2승
4	NC	35-29-0	0.547	7.0	3승
5	키움	36-31-0	0.537	7.5	2승
6	삼성	29-35-0	0.453	13.0	1승
7	한화	28-36-0	0.438	14.0	2패
8	kt	28-38-0	0.424	15.0	3승
9	KIA	25-39-1	0.391	17.0	3패
10	롯데	23-42-0	0.354	19.5	5패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키움 히어로즈(67경기)가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를 마친 가운데 KIA 타이거즈도 65경기(25승39패1무)를 소화해 이번주 우천취소 없이 마치면 사실상 정규리그 전체 일정의 절반을 끝내게 된다.

10일 현재 순위는 상위 5개팀과 하위 5개팀의 순위 양극화가 크다. 5위 키움과 6위 삼성의 격차는 5.5경기나 된다. 하위권 팀에서 기적과도 같은 연승을 타지 않는 이상 굳어진 판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간 성적 1승 5패로 하위권에 처진 KIA는 이번 주 분위기를 뒤집지 못하면 하위권 경쟁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이번주 상대하는 삼성(11·13일), 롯데(14·16일)와의 6연전에서 반등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다시 치고 올라갈 기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위인 KIA는 6위 삼성과는 4게임차, 꼴찌 롯데와는 2.5게임차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삼성, 롯데와 각각 3승3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최근의 부진을 떨치고 다시 상승세를 타야 하는 KIA는 11일 차명진이 선발 등판, 기선 제압에 나선다.

지난 주말 NC에 3경기 연속 1점차 패배를 당하며 뒷심 부족을 보인 KIA는 삼성을 상대로 반등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승패차 ‘-6’으로 시즌 5할 승률에 근접한 삼성은 중위권 경쟁에 뛰어들며 태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말에 만나는 롯데도 5연패를 당해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2명을 모두 교체해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중반 레이스를 앞두고 KIA가 어떻게 일정을 풀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화 기자

## 벤투호 오늘 이란전 “실험하더라도 틀 유지”

2022카타르월드컵 예선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

“실험을 하더라도, 우리 팀의 틀과 스타일은 유지하겠습니다.”

이란과의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를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의 원칙은 확고했다.

벤투 감독은 10일 파주 N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이란과 친선경기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경기는 오는 9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앞둔 벤투호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벤투 감독은 고압권 실험보다는 안정적인 점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란전에서 실험적인 선수기용을 하더라도 우리 팀의 틀과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은

월드컵 예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벤투 감독은 “선수를 기용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다”며 “우리 플레이 스타일과 어울리고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용하는 선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3명을 소집하면 경기에 못 뛰는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선수들에게 모두 고른 출전시간을 주고 대표팀에 데뷔시켜주기 위해 소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교체 카드도 경기에 들어가 전 몇장을 쓸지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진행되는

경기 상황을 보고 필요한 선수를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부산에서 열린 호주와의 맞대결에서 대결에서 황의조(김해 오사카)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챙긴 벤투호는 A매치 4연승에 도전한다.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아컵에서 8강에서 카타르에 젔던 한국은 이후 3월 A매치 상대였던 볼리비아·콜롬비아를 연이어 꺾은 데 이어 호주까지 잡아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벤투 감독은 “이란은 새 감독이 부임한 후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며 “사령탑이 바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를 완벽히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의 평가전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한국과 이란의 평가전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